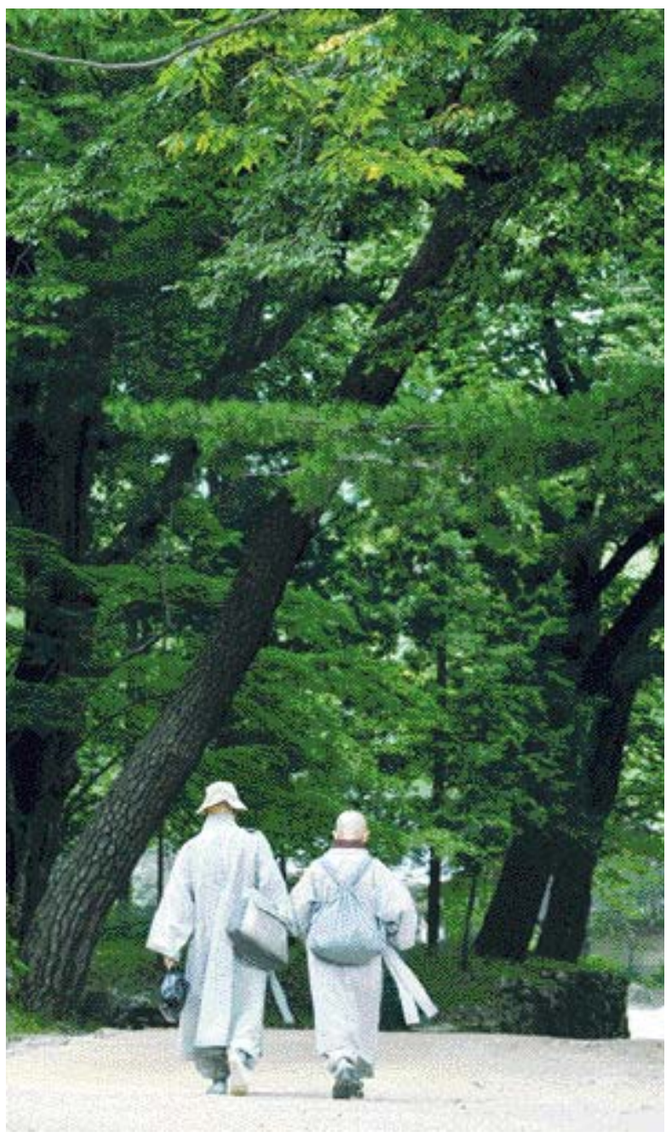


다시 구도의 길로 무엇을 깨달은 것일까? 24일 오전 순천 송광사에서 석달간의 하안거(夏安居·여름 동안 한 곳에 머물며 수행하는 일)를 마친 스님들이 일주문을 나서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경술국치 100년

치욕의 역사 되새긴다

28일 금남로에서 '민족자주문화제'

광주시청야외음악당선 '친일음악회'

"원수들이 강하다고 겁을 낼 건가 우리들이 약하다고 낙심할 건가…, 압록강과 두만강을 뛰어 건너라. 잃었던 조국강산 회복하는 날 만세를 불러보세."

경술 국치 100년을 하루 앞둔 오는 28일 광주 금남로에서 시민들에 의해 울려 퍼질 1910년 당시 독립군들이 불렀던 '독립군가'의 일부다.

광주 민주화의 상징인 금남로에서 경술 국치 100년을 되새기는 행사가 열리고, 광주시청 야외음악당에서는 친일음악을 바로 알기 위한 음악회가 개최된다.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6·15공동위광주전남본부 등이 공동 주최하는 '경술 국치 100년 민족자주 문화제'가 28일 오후 7시 금남로에서 열린다.

이 행사에서는 순천 출신 근로정신대 할머니인 김성주·김정주 자매 할머니의 증언과 일제 아픔을 고스란히 담은 근로정신대 사진전, 영상전 등이 열린다. 이어 일본총리에게 한·일 과거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엽서 쓰기 행사가 펼쳐진다.

대미를 장식할 행사는 지역 대학생 및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합창단'의 공연이다. 시민합창단은 쓰라림과 수치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조국을 위해 목숨을 초개같이 바친 독립군들의 노래인 '독립군가'나 '우리의 소원은 통일''아침이슬' 등을 부를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6시 광주시청 야외음악당에서는 '국치 100년 기억 친일음악회'가 막이 오른다. 이 자리에서는 강제병합 100년 홍보 영상과 친일음악의 진상을 알리는 패널 전시회가 마련되고, 친일 음악가들이 작곡한 노래들이 소개된다.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의 관계자는 "기억하기 싫고 이미 상당 부분을 잊어 버린 역사지만, 굴욕의 역사인 경술 국치를 되새겨 과거의 아픔을 자산화하기 위해 문화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多사랑 태교음악회'

아이낳기광주운동본부

오늘 광주은행 대강당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난해 출범한 '아이낳기 좋은세상 광주운동본부'는 25일 오후 2시 광주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출범 1주년 기념식과 '多사랑 태교음악회'를 갖는다.

광주운동본부는 이날 행사에서 출산장려 글짓기 공모 입상작 시상식을 갖고, 롯데백화점과 저출산 극복에 대한 MOU를 체결한다.

'多사랑 태교음악회'는 시인과 가수·소프라노가 함께하는 포엠콘서트로 구성, 참석 다자녀 가정과 임신부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수능 원서접수 시작

내달 9일까지 … 수정·변경기간도 운영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1월18일 치러지는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25일부터 전국 82개 시험지구 교육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접수기간은 25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12일 간(토요일·공휴일 제외)으로 지난해와 같고, 접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올해부터는 응시원서 작성 내역을 수정·변경할 수 있는 기간을 운영한다. 이미 원서를 접수했더라도 다음달 7~9일 사흘간 당초 응시하고자 했던 시험영역과 과목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응시원서 접수기한 연장은 절대 불가하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시험을 볼 수 있다고 교과부와 평가원은 강조했다.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교에서, 졸업생은 출신 고교에서 원서를 받아 제출한다. 단 졸업생의 현 주소지와 출신 고교 소재지가 다를 경우 현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 원서를 내도 된다.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도 현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원서를 접수하고 장기 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응시자는 출신 고교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 원서를 낼 수 있다.

원서를 낼 때는 여권용 규격(가로 3.5㎝×세로4.5㎝) 사진 2매와 응시수수료를 준비해야 한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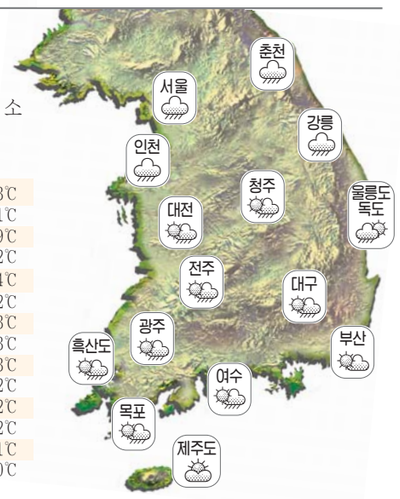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59분 / 해짐 19시 09분 — 달뜸 19시 08분 / 달짐 06시 17분

폭염 속 소나기

구름이 많겠으며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광 주	오후 한때 비	26/33℃
목 포	오후 한때 비	25/31℃
여 수	오후 한때 비	25/29℃
완 도	오후 한때 비	25/32℃
구 례	오후 한때 비	24/34℃
해 남	오후 한때 비	25/32℃
장 흥	오후 한때 비	24/33℃
고 흥	오후 한때 비	24/33℃
순 천	오후 한때 비	24/33℃
영 광	오후 한때 비	24/32℃
진 도	오후 한때 비	25/32℃
전 주	오후 한때 비	24/32℃
남 원	오후 한때 비	22/31℃
흑산도	오후 한때 비	23/30℃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0.5~0.5m
먼바다	남동~남	0.5~0.5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0.5~0.5m
먼바다	남동~남	0.5~1.0m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0.5~0.5m
먼바다	남동~남	0.5~0.5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0.5~1.0m
먼바다	남동~남	1.0~1.5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매우높음	경고	매우높음

	밀물	썰물
목포	02:39 / 14:42	07:53 / 19:58
여수	09:18 / 21:44	03:18 / 15:20

◇주간날씨 —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6(목)	27(금)	28(토)	29(일)	30(월)	31(화)
날 씨						
최저/최고	25/31	24/30	24/30	25/30	24/31	24/31

비도 못말리는 폭염

광주·전남 낮 최고 34도 '후텁지근'

25일 광주·전남지역은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지만 낮에는 여전히 후텁지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5일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으며, 오후에는 대기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가 내리겠다"고 24일 예보했다. 예상 강우량은 5~20㎜.

낮 최고기온은 29~34도로 전날과 비슷해 한낮에는 무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3~26도로 지역에 따라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

27일과 28일에도 기압골의 영향으로 광주·전남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며, 비가 내린 후에는 당분간 33도를 넘는 폭염은 없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